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0호 현대불교
2007년 5월 30일(음력 4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13

좀 너그럽게 사세요! 인생은 한 철이예요!

마음의 계발이 진부한 것 같아

문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발전이 아닌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전된 이 첨단 사회에서 마음의 계발이 된다 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탐나러를 여행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음의 계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루한 것인 양 치부되는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 예전에 미국 동남부의 해협, 그 삼각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행기 사건, 그 예 언젠가? 1945년이었던지 언젠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성이 계발이 됐다면 그렇게 말려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물이나 흙이나 지수화공에 다 생명이 있고 핵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전자(前者)인 전자가 그 핵을 보강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현자(現者)가 바로 그것을, 후자와 더불어 전자(前者)·후자(後者), 양자(兩者), 중성으로서 내가 그 핵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있다면 상태에서 끌어 잡아당겨도 내가 그러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보강해서 말한다면 내가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찾고 들어간다면, 즉 말하자면 심오 리, 백오십 리, 백오십 리 안팎으로 첫째 알 수 있고, 팔십 리를 알 수 있고, 백 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숫자 아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어떠한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알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료가 보강돼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도 그대로 보강돼 있어요. 다 그런 데다 그 능력이 부실하지 않다면 그것을 오히려 빨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이 100% 보강이 되죠. 그런데 내가 빨려들어 간다면 내 힘이 다 그러로 빠져 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계발이 되면 심이존불(十二尊佛)이, 즉 말하자면 '즉 여별상'이라고 그럴까? 뚜렷한, 그 최고의 밝은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심이존불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이 전파가 돼서 바로 나한테 그게

보강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끄는 힘과 끌리지 않는 힘, 주는 힘과 끄는 힘 이것을 다 보강을 해 가지고 있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왜 비행기가 그렇게 말렸는가? 심어 명을 태운 그 아주 일등 기사들이라는데 말입니다. 심어 명씩이나 기사들이 났는데 왜 그게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서로 전자(前者)·후자(後者)·현자(現者)가 전부 보강돼서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삼각이니까, 삼삼(三三)은 구(九)거든. 벌써,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서 쪼개고 또 쪼개면 수없이 그냥 많아지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색깔을 여러 개를 놓고 한번 보고 오세요. 앞뒤로 놓고 옆으로도 놓고. 그러면 내가 몇 개가 되냐? 그 핵의 힘이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삼각이라는 것은, 그것도 모두가 자기의 그 보강된 원자·핵·전자 이런 것이 자력, 끌어당기는 힘을, 즉 말하자면 이름 해서 그것도 불인 거겠죠. 모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우리 힘이 그렇게 강하다면 그 거대한 게 다섯 대고 몇 대고 송두리째 없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래 보세요. 만약에 그 바깥에다가 물건 하나를 내던져 보세요. 그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나. 나침반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죠. 그렇게 힘이 세단 말입니다. 빨아 당기는 힘이.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도 체험을 해 봤지만 모두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내가 물질이 참 징그럽고 무섭다 하면 그 영(靈)

의식만 가지고 만나거든요. 물질 몸뚱이는 안 만나도. 그래 그게 싫으면, 백 리 안팎, 십 리 안팎만이라도 '아이, 우리 모습으론 보지 말자' 하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건 인간들이 사는 거나 벌레가 사는 거나 새들이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짐승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의식으로는 '아이고, 구더기가 돼 가지고 더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나 구더기 속에 들어가 본다면 구더기는 구더기 나름대로 살 만해요. 우리가 금 보듯이 풍도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실험살이하는 그 나름대로 용도대로 주어진 그 삶이,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만약에 계발이 된다면, 능숙하고 지

혜롭고 침단을 넘어가리만큼 그렇게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왕래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옛날에 한국전쟁 났을 때도 점사비행기가 많이 나타났죠. 난 그걸 봤어요. 제가 그때 스물세 살인가 그렇게 됐을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반짝 반짝 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낮게 딱 스쳐 가는데 뭐가 파괴가 된 줄 아십니까? 물질이 그냥, 그냥 거기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릇 굽는 가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장문으로 내다본 것이 그거거든요.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부처의 스승 아닌 게 없고 또는 모든 것의 부처가 스승 아닌 게 없다고.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풀 한 포기도 벌레 한 마리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배움에 의해서 그것이 확립되고 조화가 되고 조질이 되고 지혜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스승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두가 생명들이 있어서 힘이 강하면,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삼각 해역에서 비행기가 없었던 것도 입증입니다. 벌써 우리보다 앞서 진화된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점사비행기가 떠서 그렇게 다니고, 백 마일쯤이든 뭐 고걸 정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파괴가 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그것은 입증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계발이 된 생물이 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 하면 꼭 그걸 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연구가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양면을 다. 한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아니 되니까, 현실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 버릴 게 없거든요. 결국은 현실로 나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당신 게 아니니까 간수 잘해라 이겁니다. 자신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 부모 부모. 육신이, 자기 육신을 간수를 잘못하면 그 부모가 아주 고통을 받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몸을 간수 잘하는 것도 효도다 이거죠. 자기 몸뚱이라고 함부로 굴러서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또는 병들거나 이런다면 그건 불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발을 하는 그만큼 앞으로 불국토가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정신계의 목전에 도달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신계가 아니

1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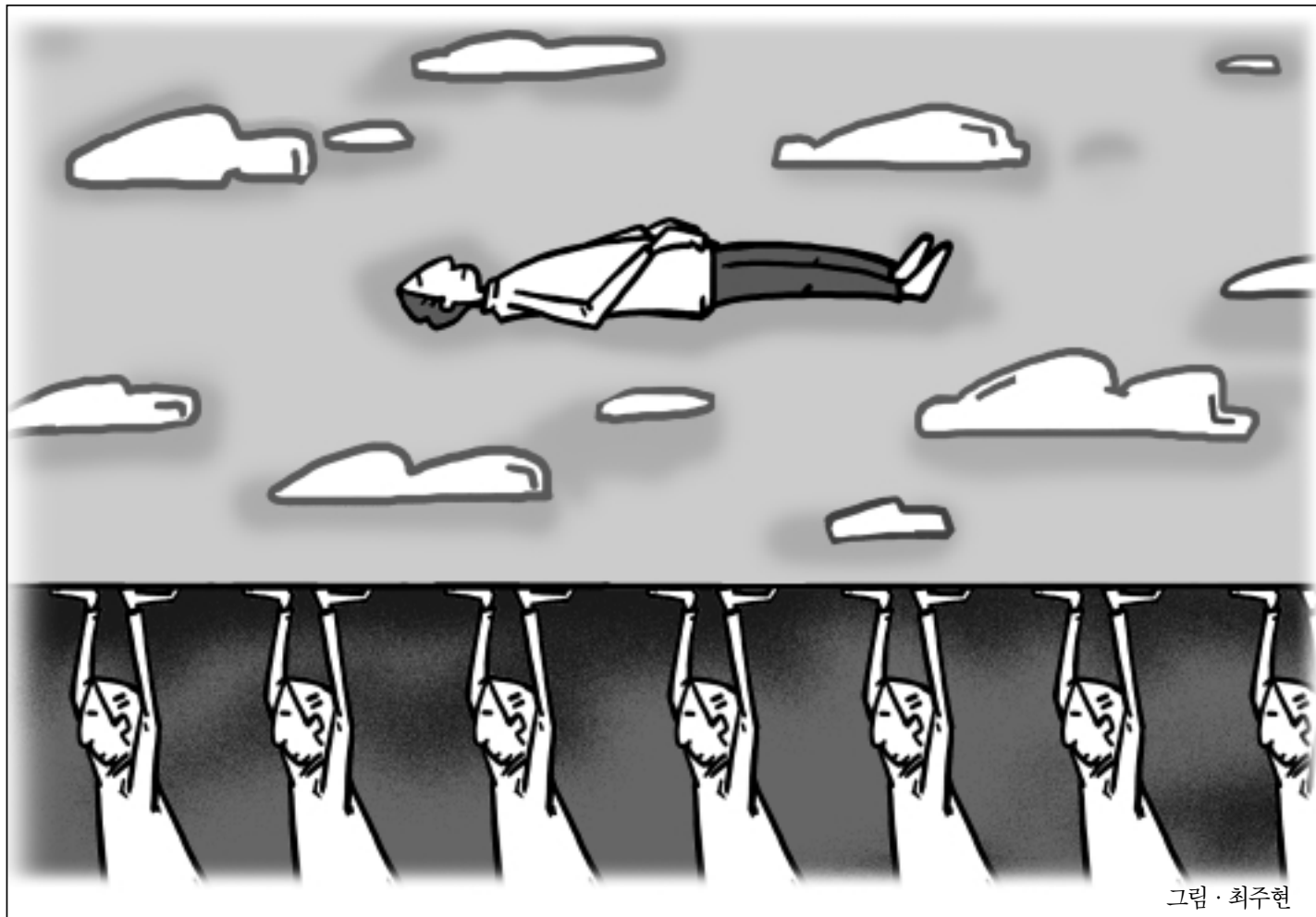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菴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과정 ● 맥진법 ● 사암침술 ● 즉효요법
-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차법, 배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위주 강좌
- ▶ 개강 : 2007. 6. 4(월·화) / 6. 9(토·일) 만
- ▶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 의료사장 개방에 대비하십시오!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귀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레이키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기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 ▶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 ▶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 ▶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웠던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